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8 권 제 1 호 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A Study on Parent-Adolescent Cohesion and the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Variables on It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 김 순 옥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 Soon Ok Kim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문제
1. 연구목적
2. 연구문제
Ⅱ. 가족응집성에 대한 견해
1. 중간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2.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3.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1
2. 연구문제 2
3. 연구문제 3
4. 연구문제 4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ecure the desirable parent-adolescent cohesion, to find out the real parent-adolescent cohesion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variables on the parent-adolescent cohesion.

The data are obtained from a sample of 364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by using questionaires. X^2-test, t-test, one-way ANOVA, Scheffé-test, Kruskal-Wallis test and difference of percentages with cross tabulation a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본 논문은 1989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1) The high parent-adolescent cohesion is found to be desirable.

2) The mother-adolescent cohesion is higher than that of the father-adolescent.

3) The father-son cohesion is influenced by siblings' existence, while the mother-son cohesion is influenced by siblings' existence and birth order.

The father-daughter cohesion is influenced by birth order and difference of ag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However the mother-daughter cohesion is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the parents and difference of ag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4) The results discribed in 3) are changed considerably by controlling the open-communication variable.

Ⅰ. 연구의 목적 및 문제

1. 연구목적

고등학생시기의 자녀는 연령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청년기[1]에 속한다. 청년기의 발달과업은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성취하는 것인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의존심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이다(김재은 1963, 65). 그런데 이러한 발달과업의 달성과정에 있어서 청년기의 자녀들은 자아정체감 확립, 형식조작적인 사고, 독립성 추구, 동료집단에 대한 소속, 異性에 대한 관심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兩價的인 감정 및 행동을 보인다(서봉연, 유안진 1982, 201-224). 즉 성장과 독립을 원하면서도 어른의 세계가 이상하고 복잡하므로 계속적으로 안정을 누리기 위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가 청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청년 모두 근심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김재은 1963, 66).

청년기자녀와 부모간의 이러한 독립 의존의 동시추구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상호간에 기대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부합되는 반응이 뒤따르지 못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자녀관계가 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 부모자녀간의 심리적인 유대감이 돈독하다면 갈등이나 불만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기자녀와 부모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심리적 유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리적 유대감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응집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가족에서의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도를 제시하고 응집성의 실제상태 및 이에 대한 가족의 구조적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는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정도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가족구조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4]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은 부모자녀간의 기능적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달라질 것인

주 1) 청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하여 Hurlock(1973, 2)은 평균적으로 여자는 13세부터 18세까지이고 남자는 14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였으며 김성태(1974, 32)는 12세부터 21세까지라고 하고 Kaluger와 Kaluger(1984, 4)는 12세부터 21~23세까지라고 하였다.

가?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변인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응집성 : Antonovsky(Antonovsky, Sourani 1988, 80 재인용)는 응집감(sense of coherence)을 1) 생활과정에서 內外的인 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자극이 구조화, 예측, 설명될 수 있으며 2) 이러한 자극에 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유효하고 3)이 요구들은 투자와 종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확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총체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Olson, Portner 그리고 Lavee(1985, 4)는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면서 분리되거나 연합된 정도에 의하여 측정된다고 하였다. 정원식(1965, 4)은 가정의 응결력이란 가족구성원이 가정을 생활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갖는 정도를 말하며 응결과 소외의 양극을 연결하는 연속선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는 응집감, 응집성, 응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종합하여 응집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부모자녀간의 응집성을 부모자녀상호간의 관계에서 유발된 요구에 대한 심리적 충족감, 정서적 유대감 및 일체감을 의미하며 격리와 몰입을 양극으로하여 분리되거나 연합된 정도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2) 가족구조변인 : 가족구성원들의 數, 性, 연령, 신분적 관계등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물리적 속성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크기, 가족의 유형, 부모의 유무, 형제자매의 유무 및 성별 구성,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와 자녀의 연령차이를 선정한다.

3) 부모자녀간의 기능적 변인 :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의사소통 솔직성을 선정한다.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은 직선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김진희 1989)는 자녀의 의사소통 솔직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II. 가족응집성에 대한 견해

前述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독립과 의존의 兩價的인 심리 및 행동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서의 응집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치판단은 부모자녀간의 응집성이 개인발달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자녀간이 포함되는 가족의 응집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바람직한 응집성의 정도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1. 중간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첫번째 견해는 가족응집성은 중간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alvin과 Brommel(1982)은 응집성의 정도에 따른 가족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몰입된(enmeshed) 가족으로 가족원들이 매우 가깝게 결합되어 자율성이나 개인적인 요구 및 목표의 달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반면에 연속선상의 서로 다른 끝에 있는 가족은 격리된(disengaged) 가족으로 친밀감이나 가족결속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며 가족원들은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Garbarino, Sebes 그리고 Schellenbach(1984)는 청소년 기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기가 적은 가족의 대부분은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연합된 형태이며 위기가 높은 가족의 대부분은 응집성이 극단적인 몰입된 형태라고 하였다. Clarke(1984)는 치료중인 정신분열증가족과 신경증적 가족, 치료경험이 없는 가족을 비교한 결과 정신분열증가족과 신경증적가족은 치료경험이 없는 가족에 비하여 가족응집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양극인 가족이 훨씬 많았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가족의 대부분은 격리되어있다고 하였다. Carnes(198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性犯罪者가 있는 가족은 性犯

罪者가 없는 가족보다 가족응집성이 양극인 가족이 훨씬 많았고 중간인 가족은 훨씬 적었다. Rodick, Henggler 그리고 Hanson(1986)의 연구결과 역시 청소년범죄자가 있는 가족은 청소년범죄자가 없는 가족에 비하여 가족응집성이 중간인 형태가 훨씬 적고 양극인 형태는 훨씬 많다. Carpenter (1982)의 연구결과는 가족응집성이 중간 수준인 가족은 양극인 가족보다 일반적으로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85)은 여러 실증연구를 종합하여 문제가족은 가족응집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양극인 경우보다 중간인 경우에 더 기능적이다라고 하였다.

2.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

두번째 견해는 가족응집성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사펴보면 다음과 같다.

Johnson(1982)은 이혼한 가족의 6~16세 아동을 대상으로하여 행동문제와 사회적 능력은 중간대 양극으로 구분된 가족응집성과 관련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지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kennedy(198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은 응집성과 가족내 스트레스와는 강한 상관이 있으며 Herring(198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가족응집성에 대한 인지는 性態度와 價値의 발달에 직접적이고 正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we(1982)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부무자녀관계의 質사이에는 正的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할 때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의 質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Smith(1985)의 연구에서도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응집성과 가족만족의 관계는 곡선적인 것이 아니라 직선적이라고 하면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85)은 여러 실증연구를 종합하여 문제가족이 아닌 일반가족은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더 기능적이라고 하였다.

Ⅲ. 연 구 방 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자녀가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을 측정하는 14문항과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사소통 솔직성을 측정하는 1문항 그리고 가족구조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연구자(김순옥 1988)가 선행연구된 응집성 측정 문항을 수집한 후 편포분석, 문항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인자분석등의 절차를 거쳐서 개발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부모님이 가깝게 느껴진다.

2) 집안일을 도울 때 부모님과 같이 하기보다는 따로 한다.

3) 내가 피로, 실망, 분노, 기쁨등을 느낄 때에 부모님도 같이 느껴주신다.

4)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5)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있기보다는 나혼자 있고싶다.

6) 한가한 때에 부모님과 같이 하고싶은 일이나 이야기거리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7) 내 개인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과 상의한다.

8)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9) 나의 일상생활을 부모님은 잘 모르신다.

10) 부모님과 나사이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기분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11) 부모님과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12)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같이 해결해 주신다.

13)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다.

14) 평상시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14문항 중 1~10은 父와 子女간의 응집성을, 5~14는 母와 子女간의 응집성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응답은〈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척도로 되어있는데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인 2, 5, 9, 10, 13은 1, 2, 3, 4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4, 3, 2, 1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론적인 응답점수의 범위는 10~4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의사소통 솔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4점척도의 단일문항으로 응답은 응집성과 같은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솔직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구조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같이 살고있는 가족원들의 성, 연령, 관계와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무 및 그 수를 묻는 내용이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자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유는 어느 한편만으로 조사되어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며[2], 부모의 응답보다는 자녀의 응답이 더 사실적이기 때문이다[3].

자료수집은 1989년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에 실시하였다.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남녀고등학교를 통하여 남·여학생 100명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총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사회계층을 어느정도 통제하기 위하여 극빈층과 극부유층이 아닌 지역의 학교를 주관적으로 선택하였다. 배부된 400부 중 387부(남학생 189부, 여학생 198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23부(남학생 17부, 여학생 6부)를 제외한 나머지 364부(남학생 172부, 여학생 192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5세에서 18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16.76세(남학생 16.86세, 여학생 16.68세)이고, 가족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적 특성 중 경제기획원에서 발간한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에 제시된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가족의 크기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크기에 있어서 전국의 조사결과는 가구원수가 5인이하인 가구는 80.5%이고 6인이상인 가구는 19.5%로[4] 본 조사의 결과와 전국규모의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가족유형에 있어서 전국의 조사결과는 핵가족(부부 또는 편부모와 자녀)이 61.7%이고 확대가족(부부와 양친 또는 편부모, 부부와 자녀와 부부의 형제자매, 3세대이상의 가구)이 17.9%이며 기타가족이 20.4%로[5]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확대가족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핵가족은 본 조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핵가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본 조사의 대상자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1세대가구, 단독가구, 비혈연가구등을 포함하는 기타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응집성에 대한 두가지 견해에 근거하여 응집성을 양극과 중간으로 구분한 방법과 순서적 개념에 의한 방법 두가지를 적용하여 분석하되 의사소통 솔직성을 준거로 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솔직성을 준거로 설정한 근거는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정의 가족원들간에는 찬성·불찬성의 의견이나 유모어 애정 온정 희망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며(장혁표, 제석봉, 김정택 1988, 61-62) 개방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은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규칙 중의 하나이므로(Wahlroos 1983) 의사소통 솔직성을 바람직한 가족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주 2) Antonovsky와 Sourani(1988, 83-84)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응집감을 측정한 결과 남편과 부인의 가족응집감 상관계수는 .77(P<.001)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주 3) Niemi에 의하면 가족생활에 대한 보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편견화되며 이 편견은 자녀의 보고보다 부모의 보고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다(박초아 1988, 25 재인용)

주 4) 산출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p489

주 5) 산출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p498

표 1. 분석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

변 인	구 분	전체(N=364) N(%)	남학생(N=172) N(%)	여학생(N=192) N(%)
가족크기[a]	3 - 5 인	259(71.2)	136(79.1)	123(64.0)
	6 - 9 인	105(28.8)	36(20.9)	69(36.0)
가족유형	핵 가 족	310(85.2)	144(83.7)	166(86.4)
	확대가족	48(13.2)	25(14.5)	23(12.0)
	기 타	6(1.6)	3(1.8)	3(1.6)
부모유무	양 친	351(96.4)	168(97.7)	183(95.3)
	父 만	2(0.6)	0(0.0)	2(1.0)
	母 만	11(3.0)	4(2.3)	7(3.7)
형제자매의 유무 및 성별구성	유	354(97.3)	166(96.5)	188(97.9)
	양 성	150(41.2)	52(30.2)	98(51.0)
	동 성 만	100(27.5)	67(39.0)	33(17.2)
	이 성 만	104(28.6)	47(27.3)	57(29.7)
	무	10(2.7)	6(3.5)	4(2.1)
출생순위	첫 째	135(37.1)	65(37.8)	70(36.4)
	중 간	101(27.7)	35(20.3)	66(34.4)
	막 내	128(35.2)	72(41.9)	56(29.2)
父 와 의 연령차[a]	18-31 세	183(50.3)	80(46.5)	103(53.6)
	32-49 세	152(41.8)	75(43.6)	77(40.1)
	父不在,무응답	29(7.9)	17(9.9)	12(6.3)
母 와 의 연령차[a]	18-27 세	185(50.8)	93(54.1)	92(47.9)
	28-40 세	158(43.4)	67(39.0)	91(47.4)
	母不在,무응답	21(5.8)	12(6.9)	9(4.7)

a : 평균가족크기는 5.1인이며 부·모와의 연령차 평균은 각각 31.5세, 27.5세이므로 각각의 평균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다.

두가지 방법 중 분석결과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연구문제 2, 3, 4를 분석하기로 한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분석대상자의 특성파악을 위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χ^2-test 또는 Fisher의 정확확률검증, t-test(필요에 따라 paired t-test), one way ANOVA 또는 Kruskal-Wallis test, 교차표에 의한 백분율 차이비교등을 적용한다. 유의성 검증 수준은 .05로 하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C$^+$를 이용한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은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정도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가? 이다.

부모자녀간의 응집성에 대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응집성이 중간정도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응집성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양극을 같은 범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중간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응

집성이 매우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다른 특성으로 보는 순서적 개념에 의한 방법 두가지에 의하여 분석하기로 하는데 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과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응집성 정도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첫째 양극과 중간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분석이다. 양극의 범주는 본 응집성 척도의 이론적 점수(10~40)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데 본 척도의 점수의미는 10점 : 격리되어 있다, 20점 : 분리되어 있다, 30점 : 연합되어 있다, 40점 : 몰입되어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10~15점은 격리집단으로, 16~34점은 분리-연합집단으로, 35~40점은 몰입집단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격리집단과 몰입집단은 양극집단이 되는 것이며 분리-연합집단은 중간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응집성의 정도를 양극과 중간으로 구분하여 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순서적 개념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 분석이다. 분석방법으로는 평균차검증을 하였는데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응집성이 낮은 집단에서의 응집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있어서 응집성이 양극

표 2. 응집성과 의사소통 솔직성과의 관계분석 I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 솔직성	응집성		X^2값	유의수준
		양 극 N	중 간 N		
부-자	고	6	50	1.4713[a]	N.S.
	저	5	107		
모-자	고	7	65	1.4383	N.S.
	저	5	95		
부-녀	고	10	55	0.1475	N.S.
	저	16	104		
모-녀	고	17	89	3.4847	N.S.
	저	6	78		

a : 기대빈도가 5미만인 칸이 있기 때문에 Fisher의 정확확률 검증방법을 적용함(차배근 1978, 464)

표 3. 응집성과 의사소통 솔직성과의 관계분석 II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솔직성	응집성			T값	유의수준
		N	M	SD		
부-자	고	56	29.02	4.34	6.49	$p<.001$
	저	112	24.13	4.73		
모-자	고	72	29.51	3.95	7.84	$p<.001$
	저	100	24.46	4.32		
부-녀	고	65	28.06	5.27	5.15	$p<.001$
	저	120	23.72	5.58		
모-녀	고	106	30.32	4.38	8.57	$p<.001$
	저	84	24.11	5.38		

인 경우와 중간인 경우의 차이는 없으나 응집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前述한 응집성에 대한 두 견해 중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인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문제가족은 가족응집성이 양극인 경우보다 중간인 경우에 더 기능적이지만 일반가족은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더 기능적이라 한 Olson과 그의 동료들(1985)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일반가족의 경우와 일치된다. 또한 유순덕(1987)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유순덕의 연구에서는 응집성이 양극적인 임상가족은 모두 과잉분리[격리]된 가족으로 나타났고 밀착[몰입]된 가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풀이하면 응집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가족문제를 일으키지만 응집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가족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매우높은 가족응집성은 역기능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특성, 한국가족의 특성 그리고 청년기자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인은 情을 강조하고 서로 사생활을 침범하고 폐쇄적인 '우리' 관을 가지고 있으며 친애감정을 토대로 한 인간관계에 치중하고 특히 혈연관계를 우위에 놓고 있기 때문이며(이부영, 차재호, 황필호 1984, 114~119) 한국가족은 超時間的인 관념적 집단인 집이라는 독특한 개념에 의하여 개인에 우선하는 제도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최재석 1970, 653~657) 청년기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노력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자 하는 兩價的 감정 및 행동 특징을 보이는데(서봉연, 유안진 1982, 201~224) 독립하려는 동기와 의존하려는 동기가 비슷한 정도이며(이옥임, 이옥주 1983, 90) 외적으로는 부모를 거부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적으로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영주 1980, 238). 종합하면 집을 중요시하고 정에 치중하는 한국의 가족적 분위기에서는 의존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는 고등학생시기의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이 높다고 하여 문제화되지는 않는 것이며 오히려 높은 응집성은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연구문제 1의 결과에 의하여 연구문제 2, 3, 4에서는 응집성에 대하여 순서적 개념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는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실태는 어떠한가?이다.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母女응집성점수가 제일 높고 다음이 母子응집성점수, 父子응집성점수이며 父女응집성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점수들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들과 딸 모두 父와의 응집성과 母와의 응집성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父와의 응집성, 母와의 응집성에 있어서는 아들과 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들 딸 모두 父보다는 母와의 응집성이 높지만 父와의 응집성이나 母와의 응집성에 있어서는 아들과 딸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내에서 행하는 父와 母의 역할차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부모의 역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차이가 희박해지기는 하지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차이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父는 자녀와의 관계가 간접성, 不在性, 소극성을 띄우며 理性的인 수단적·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에 母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본능적이리만큼 강력하고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에 있어서 자녀에게 흡수력이 강한 표현적·정서적 역할

표 4. 응집성 실태

부모자녀관계	응 집 성		
	N	M	SD
부-자	168	25.76	5.14
모-자	172	26.58	4.85
부-녀	185	25.24	5.84
모-녀	190	27.57	5.74

표 5. 부모자녀관계에 따른 응집성의 차이 비교

비교하고자 하는 부모자녀관계	응집성			t값	유의수준
	N	M	SD		
부-자	168	25.76	5.14		
모-자[a)]	168	26.57	4.84	3.14	$p<.05$
부-녀[a)]	183	25.21	5.86		
모-녀[a)]	183	27.37	5.72	6.07	$p<.001$
부-자	168	25.76	5.14		
부-녀	185	25.24	5.84	0.87	N.S.
모-자	172	26.58	4.85		
모-녀	190	27.57	5.74	1.79	N.S.

a : N, M, SD의 값이 표 4와 다른이유는 paired t-test를 위하여 편친인 경우를 제외 하였기 때문이다.

을 담당하기 때문에(유영주 1984, 214~218) 정서적 관계인 응집성에 있어서는 父와의 응집성보다 母와의 응집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3

연구문제 3은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가족구조변인(가족크기, 가족유형, 부모유무, 형제자매유무, 형제자매의 성별구성, 출생순위, 父와의 연령차, 母와의 연령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이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父子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에 따라, 母子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와 출생순위에 따라, 父女응집성은 출생순위와 母와의 연령차에 따라, 母女응집성은 부모유무와 母와의 연령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父子응집성은 獨子인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더 높고, 母子응집성은 獨子인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와 출생순위가 중간인 경우보다 첫째인 경우에 더 높고, 父女응집성은 출생순위가 중간인 경우보다 첫째인 경우와 母와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높고, 母女응집성을 父母모두 있는 경우보다 父는 없고 母만 있는 경우와 母와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독자의 자기중심적인 특성, 長子중심의 가족특성, 母와의 연령차에 따른 공감형성차이, 결손가족의 보호적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문제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기도 하고 상반되기도 한다. 유영주(1984, 226-230)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조요인으로 가족형태, 자녀수, 출생순위, 가족원의 연령, 가족의 성별 비율들을 제시하였고 이옥임과 이옥주(1983, 91)는 청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의 크기, 출생순위와 관계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견해들과 부분적으로 일치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Kennedy(1983)는 양친이 있는 대학생이 편친만 있는 대학생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Bentley(1983)는 쌍동이 청소년(동성의 형제자매)이 그렇지않은 청소년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외국연구와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가족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의식이 강한 한국가족에서는 형제자매간의 동료적인 관계에 의한 영향은 적지만 편친 특히 母만 있는 경우에는 父不在로 인한 사회적 결손이 母에게 보상적으로 작용하여 응집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친인 경우의 사례수가 적은 상

태에서 母만 있는 경우에 母女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편친인 경우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연구문제 4

연구문제 4는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은 부모자녀간의 기

표 6. 가족 구조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응집성의 차이 비교

가족구조변인		부-자 응집성			모-자 응집성			부-녀 응집성			모-녀 응집성		
		N	M	SD	N	M	SD	N	M	SD	N	M	SD
가족 크기	3-5인	132	25.79	5.03	136	26.70	4.94	117	25.83	5.50	122	27.93	5.68
	6-9인	36	25.64	5.62	36	26.11	4.53	68	24.24	6.30	68	26.93	5.84
	F	0.0236			0.4160			3.2406			1.3482		
가족 유형	핵	141	26.06	5.10	144	26.87	4.92	159	25.33	5.67	165	27.75	5.74
	확대	24	24.00	5.30	25	25.12	4.39	23	24.17	6.83	22	26.05	5.83
	F	3.3235			2.7666			0.7951			1.7063		
a)b) 부모 유무	양친	168	25.76	5.14	168	26.57	4.84	183	25.21	5.86	183	27.37	5.72
	편친	·	·	·	4	27.00	6.22	2	28.50	0.17	7	33.00	3.00
	H	·			0.2915			0.9877			8.1379**		
b) 형제 자매 유무	유	163	25.94	5.08	166	26.68	4.80	181	25.23	5.90	186	27.55	5.71
	무	5	19.80	4.60	6	23.67	5.96	4	26.00	3.46	4	28.50	4.43
	H	6.0860*			7.5525**			0.0176			0.1312		
형제 자매 구성	양 성	51	26.27	5.28	52	26.79	5.00	94	25.06	5.80	96	27.11	5.69
	동성만	66	25.89	4.81	67	27.12	4.62	32	24.91	6.68	33	29.64	4.99
	이성만	46	25.63	5.25	47	25.94	4.83	55	25.69	5.62	57	27.09	6.15
	F	0.1982			0.8586			0.2522			2.6566		
c) 출생 순위	첫 째	64	26.31	5.41	65	27.45	5.61	69	26.39	5.41	70	28.56	5.04
	중 간	35	24.89	4.57	35	24.86	3.56	63	23.84	5.72	65	26.92	6.32
	막 내	69	25.68	5.17	72	26.63	4.94	53	25.42	6.26	55	27.09	5.80
	F	0.8819			3.3352*			3.2477*			1.6499		
父와의 연령차	18-31	80	26.05	5.18	80	27.03	5.04	103	25.86	5.65	102	27.83	5.27
	32-49	75	25.84	5.12	75	26.47	4.69	77	24.29	6.08	76	26.47	6.17
	F	0.0645			0.5080			3.2243			2.5030		
母와의 연령차	18-27	92	25.79	4.99	93	26.70	4.98	90	26.31	5.04	92	28.40	5.27
	28-40	64	26.09	5.35	67	26.79	4.77	87	23.87	6.45	91	26.42	6.01
	F	0.1286			0.0138			7.8804**			5.6403*		

*: $p<.05$ **: $p<.01$

a) 분석대상자중 父가 없는 子는없었기 때문에 부모유무에 따른 부자 응집성 차이비교분석은 못함

b)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Kruskal-Wallis Test를 적용함(Minium 1978, 404)

c) Scheffé test 결과 모자응집성, 부녀응집성에 있어서 모두 첫째와 중간에 차이가 있음.

표 7. 통제전의 응집성과 가족구조변인과의 관계 %(N)

부모자녀 관계	가족 구조변인		응집성[a]		계
			고	저	
부-자	형제자매 유무	유	52.8	47.2	100.0(163)
		무	·	100.0	100.0(5)
모-자	형제자매 유무	유	54.2	45.8	100.0(166)
		무	16.7	83.3	100.0(6)
	출생순위	첫째	61.5	38.5	100.0(65)
		중간	31.4	68.6	100.0(35)
		막내	55.6	44.4	100.0(72)
부-녀	출생순위	첫째	66.7	33.3	100.0(69)
		중간	36.5	63.5	100.0(63)
		막내	52.8	47.2	100.0(53)
	母와의 연령차	18-27	57.8	42.2	100.0(90)
		28-40	43.7	56.3	100.0(87)
모-녀	부모유무	양친	50.8	49.2	100.0(183)
		편친	85.7	14.3	100.0(7)
	母와의 연령차	18-27	55.4	44.6	100.0(92)
		28-40	47.3	52.7	100.0(91)

a : 각 부모자녀간의 응집성 평균점수(표 4참조)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이상은 고집단으로 평균미만은 저집단으로 구분함.

능적 변인(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달라질 것인가? 이다.

연구문제 3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구조변인에 대해서만 매개변인의 작용을 살펴보기로 하며, 교차표에 의하여 백분율차이를 비교하는 통제방법[6]을 적용하기로 한다.

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을 통제하기 전의 가족구조변인과 부모자녀응집성과의 관계는 표 7[7]에, 통제한 후의 관계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과 표 8을 비교하면 모든 분석에서 통제후의 관계는 통제전의 관계와 상당한 정도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에 대한 가족 구조변인의 영향은 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솔직성을 통제한 후의 달라진 주요경향을 통제하기 전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는데 가족구조변인 중 응집성을 높게 하는 변인특성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1) 父子응집성에 있어서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의 높은 응집성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으나 의사소통솔직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당히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母子응집성에 있어서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와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의 높은 응집성 비율을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으나 의사소통솔직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훨씬

주 6) 통제의 통계적 방법으로는 주로 교차표(cross tabulation)와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에 의한 방법이 적용되며 변인의 측정수준에 따라 백분율차이, gamma, Pearson's r을 사용하여 분석하는데(Nachmias, Nachmias 1981, 360-367) 본 연구에서는 변인의 측정 수준이 명목척도도 있기 때문이다.

주 7) 통제후와 비교하기 위하여 표 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가족구조변인에 대해서 다시 교차표를 작성한 것이다.

표 8. 의사소통 솔직성을 통제했을때의 응집성과 가족구조변인과의 관계 %(N)

부모자녀 관계	가족구조변인		의사소통 솔직성[a] : 고			의사소통 솔직성[a] : 저		
			응집성[b]			응집성[b]		
			고	저	계	고	저	계
부-자	형제자매 유 무	유	71.4	28.6	100.0(56)	43.0	57.0	100.0(107)
		무	0.0	0.0	0.0(0)	0.0	100.0	100.0(5)
모-자	형제자매 유 무	유	77.1	22.9	100.0(70)	37.5	62.5	100.0(96)
		무	50.0	50.0	100.0(2)	0.0	100.0	100.0(4)
	출생순위	첫 째	81.8	18.2	100.0(33)	40.6	59.4	100.0(32)
		중 간	50.0	50.0	100.0(10)	24.0	76.0	100.0(25)
		막 내	79.3	20.7	100.0(29)	39.5	60.5	100.0(43)
부-녀	출생순위	첫 째	84.6	15.4	100.0(26)	55.8	44.2	100.0(43)
		중 간	60.9	39.1	100.0(23)	22.5	77.5	100.0(40)
		막 내	87.5	12.5	100.0(16)	37.8	62.2	100.0(37)
	母와의 연령차	18-27	75.8	24.2	100.0(33)	47.4	52.6	100.0(57)
		28-40	75.0	25.0	100.0(28)	28.8	71.2	100.0(59)
모-녀	부모유무	양 친	71.0	29.0	100.0(100)	26.5	73.5	100.0(83)
		편 친	100.0	0.0	100.0(6)	0.0	100.0	100.0(1)
	母와의 연령차	18-27	70.4	29.6	100.0(54)	34.2	65.8	100.0(38)
		28-40	72.3	27.7	100.0(47)	20.5	79.5	100.0(44)

a : 의사소통 솔직성 점수(1-4)가 3, 4일때는 고집단으로, 1, 2일때는 저집단으로 구분함
b : 응집성의 집단구분은 표 7과 같음.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 父女응집성에 있어서 :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와 母와의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의 높은 응집성 비율을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으나 의사소통솔직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당히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母女응집성에 있어서 ;

편친 즉 母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모두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솔직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두 응집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母와의 연령차이가 적은 경우의 높은 응집성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솔직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훨씬 더 많아졌으나 의사소통솔직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훨씬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가족응집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 즉 양극적이기보다는 중간정도의 응집성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과 의존의 兩價的인 감정 및 행동을 보이는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어떠한 정도가 바람직하며, 응집성의 실태는 어떠하며, 응집성에 대한 가족구조변인(가족크기. 가족유형. 부모유무. 형제자매유무. 형제자매의 성별 구성. 출생순위. 父와의 연령차. 母와의 연령차)의 영향은 어떠하며, 이 영향은 부모자녀간의 기능적 변인(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의 통제에 의하여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일반가족에서는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2) 고등학생자녀는 父와의 응집성보다 母와의 응집성이 더 높다.

3)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가족구조변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父子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에 의하여, 母子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와 출생순위에 의하여, 父女응집성은 출생순위와 母와의 연령차에 의하여, 母女응집성은 부모유무와 母와의 연령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4) 3)에서 나타난 영향은 자녀의 의사소통솔직성변인으로 통제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달라진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서울시에 한정되었고, 편친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의 사례수가 매우 적고, 가족구조변인과 기능적 변인을 다양하게 다루지 못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로는 사회적 변인과 부모자녀응집성과의 관계,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가족응집성과 가족의사소통과의 관계등에 관한 분석을 제안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2) 김성태 :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1974*

3) 김순옥 : 부모자녀간의 응집성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1)* : *115-131, 1988*

4) 김재은 譯(Havighurst RJ 著) :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배영사, *1963*

5) 김진희 :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6) 박초아 : 청년기대학생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7) 서봉연 · 유안진 :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8) 유순덕 :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 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9) 유영주 :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0*

10) 유영주 :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4*

11) 이부영 · 차재호 · 황필호 :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2) 이옥임 · 이옥주 :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1983*

13) 장혁표 · 제석봉 · 김정택(역) :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14) 정원식 : 가정환경진단검사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타, *1965*

15) 차배근 : 사회통계방법.서울, 세영사, *1978*

16) 최재석 : 한국가족연구. 서울, 민중서관, *1970*

17) Antonovsky A & Sourani T :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 79-92, 1988*

18) Bentley SS : *Family cohesion in families of twins.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1983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3) : 960-A, 1984*

19) Carnes P : *Counseling sexual abusers. Minnesota : Comp Care Publications, 1985*

20) Carpenter PJ :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offspring adjustment : the discriminative power of th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Ph.D. Dissertation Univ. of Southern Mississippi, 1982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 : 296-A, 1983*

21) Clarke JP :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s. Ph.D.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1984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3) : 962-A, 1984*

22) Galvin KM & Brommel BJ :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man and Co., 1982*

23)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C :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5 : 174-183, 1984*

24) Herring LL : *The effect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on psychosexual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 1985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3) : 806-A, 1985*

25) Hurlock EB : *Adolescent development. Tokyo : McGraw-Hill Kogakusha Ltd., 1973*

26) Johnson BH : *Children coping with divorce : a test of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functioning.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1982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10) : 3428-A, 1983*

27) Kaluger G & Kaluger MF : *Human development. Missouri :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lishing, 1984*

28) Kennedy GE :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 cohesion, adaptability and stress in blended, single-parent and intact families.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 1983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9) : 2899-A, 1984*

29) Lowe DW :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ility, and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 1982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8) : 2804-A, 1983*

30) Minium EW : *Statistical reasoning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78*

31) Nachmias D & Nachmias C :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1*

32) Olson DH, Portner J & Lavee Y : *FACES III. Minnesota : Univ. of Minnesota, 1985*

33) Rodick JD, Henggler SW & Hanson CL :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 77-87, 1986*

34) Smith DE :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1985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 : 1077-A, 1986*

35) Wahlroos S : *Family communication. New York : Mosby Press, 1983*